

1998년 하반기 주요 노동조합 선거 결과와 과제

노항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집위원

1998년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민간대기업 노동조합의 선거가 각 사업장별로 진행되고 있다. 현시기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대다수 노동조합운동의 자원이 민간대기업 노동조합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들 사업체의 노동조합 선거 결과는 작게는 각 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활동 방향을 가름케 하고, 크게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노동운동의 진로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들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매년 하반기에 노동조합 선거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직후 노동조합이 주로 하반기에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간대기업의 노동조합 결성이 7~8월 노동자투쟁 이후 연말까지 계속되면서 이후 2~3년 사이 전국적인 노동조합 결성 운동을 이루어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그간의 노동조합 활동이 상반기 임·단협을 마친 후 집행부 선거를 진행하게 되면서, 또한 임·단투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 침탈을 하반기에 충원하게 되면서 노동조합 선거 일정의 집중이 이루어졌다. 올해 역시 이런 과거를 이유로 9월 이후 주요 민간대기업 노동조합 선거가 이어지게 된 셈이다.

올해 민간대기업 선거에서 가장 큰 초점이 되었던 것은 역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였다. '말도 많고, 탈도

대부분 근소한 차이로 이루어진 선거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지지도를 통해서 볼 때 '강력 투쟁' 과 '현실적 대응' 사이의 차별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정도다. 현장 조합원이 여전히 고용보장투쟁의 방향과 관련한 확실한 대안을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많았던' 대우자동차노조 집행부 선거는 선거운동을 포함해서 거의 두 달 가까이 끌어 12대 추영호 집행부 탄생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대우자동차노조 선거를 둘러싼 내부 혼선은 이후 적절한 선거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 과정으로, 신임 집행부의 약속사항이기도 하다.

9월 이후 이어진 주요 기업체 선거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주로 금속산업(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조합들이며,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노조와 과학기술노조 집행부 선거 역시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근로조건 개선에서 고용보장으로 선거쟁점 변화

올해 진행되고 있는 민간대기업 및 일부 대규모 공기업 노동조합 선거에서 보여지는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역시 IMF 관리체제 하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고용불안 상황을 반영해서, 기존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서 고용보장 확보로 선거쟁점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업장 선거에서, 그리고 모든 후보로부터 '고용보장 쟁취'는 공동의 과제였

고, 공동의 구호였다.

이에 비해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을 만큼 미미한 것이었다.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업 사업장에서 조선산업의 특수 호경기에 힘입어 각각 근로조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쟁점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차라리 이들 사업체에서 모두 현 집행부 재당선이 이루어진 것은 집행부 활동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기업의 호경기와 고용·근로조건에 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고용보장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과거 선거에서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어용 대 민주' 식 선거구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의 노동조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어용/민주 문제였다. 그러나 올해 주요 기업체 선거에서 '회사 협조' 또는 '투쟁 대신 실리'를 표방하는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고, 후보 상호간에도 상대 후보를 '어용'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떻게 고용보장을 확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대다수 선거

[표] 주요 노동조합 선거 결과

노조	조합원수	최종 투표자수 및 투표율	최종 투표일	최종 선거결과 후보(득표수/득표율)	주요 특징
대우자동차	10,648	9,475(89.1%)	10.27	추영호(4,821/50.9) 김성갑(4,379/46.2)	· 선거관리의 문제점 · 양보교섭에 대한 조합원의 반발
한라중공업	3,148	2,791(88.6%)	9.23	권성원(3,412/54.5) 김병수(1,192/42.7)	· 현장조직후보 당선 · 직권조인에 대한 반발
아시아자동차	5,704	-	9.21	박병규(2,787) 조홍영(2,467)	· 현장조직후보 당선 · 노사협력에 대한 반발
대우조선	7,915	7,159(90.44%)	10.16	나양주(3,813/53.2) 권성태(3,306/46.1)	· 현직위원장 재당선
인천제철	2,209	2,038(92.3%)	11.2	문상기(1,261/62.5) 김동교(756/37.4)	· 위원장 목중출마 재당선
한국중공업	4,297	3,296(76.7%)	9.24	김창근(1,790/54.3) 손석형(1,380/44.9)	· 집행부 교체 · 민영화 대응
서울지하철	9,746	8,503(87.25%)	10.30	석치순(4,315/50.7) 최종진(3,978/46.7)	· '민주파' 난립 · 구조조정 대응 · 공공부문 연맹 통합
한진중공업	1,374	1,196(87%)	10.29	정상채(632/52.8) 김주익(540/45.2)	· 현직위원장 재당선
대우정밀	775	659(89%)	9.24	윤승근(588/89.2)	· 단일후보
과학기술노조	3,570	2,648(74.1%)	10.26	이성우(2,528/95/5)	· 단일후보 · 공공부문 구조조정

진영은 거의 똑같은 수준에서 강력 투쟁을 다짐하는 형국이고, 일부 진영이 현실적 대응을 첨삭하는 정도였다.

이것은 오늘 노동조합운동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상황의 반증이기도 하고, 노동조합 활동이 단지 '협조'나 '투쟁이냐'는 이분법식 구분을 넘어 현실적 대안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대부분 근소한 차이로 이루어진 선거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지도도를 통해서 볼 때 '강력 투쟁'과 '현실적 대응' 사이의 차별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정도다. 현장 조합원이 여전히 고용보장투쟁의 방향과 관련한 확실한 대안을 모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용/민주 구도의 약화

일각에서 '민주파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선거과정을 지켜볼 때 예년의 양상과 다를 만큼 소위 '민주파'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라리 예년의 선거에 비해 뚜렷한 특징의 또 다른 하나는, 예외없이 주

대다수 사업체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고용보장을 확보하겠다”는 선언만 있었지, 기업 단위에서 그리고 전체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기하는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

요 후보자 대부분이 과거 노동조합 활동 경력자라는 점이다. 분열 역시 이런 과거 활동에서 확인된 단순한 정서의 차이, 활동방식의 차이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장 조합원들이 경험에 기초해서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의 보유 여부를 투표행위의 주요한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현상은 현재 노동조합 활동의 주축이 30대 후반 ~ 40대 초반의 노동자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시키는 한편, 노동조합 활동가층이 새로운 세력으로부터 수혈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물론, 예년에도 확인해온 바와 같이 선진 노동자층으로 구성된 ‘현장조직’들이 합의해서 단일 후보를 추대할 경우, 예외 없이 당선되는 사례는 대우조선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년동안 거듭되어온 바와 같이 소위 ‘현장조직’들이 노동조합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특징의 하나다. 주로 민간대기업 현장에 조직되어 있는 ‘선진 노동자층’의 비공식 조직들은 선거진영의 형성, 주요

정책 제시, 지지층의 조직화 등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파 분열’에 대한 우려 역시 이들 현장조직들이 사소한 경험의 차이로 난립하고, 이런 현상이 선거과정에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에 대한 대안 찾기 힘들어

이런 몇 가지 특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운동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이들 사업체에서 고용보장 투쟁의 향후 방향, 그리고 전체 노동운동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부족했다는 점은 틀림없다. 대다수 사업체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고용보장을 확보하겠다”는 선언만 있었지, 기업 단위에서 그리고 전체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기하는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위기의식으로 해서 후보가 현실의 어려움을 조합원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선거의 특수성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의 이런 특수성은 결국 조합활동에 일상적으로 작용해서 노동조합이 ‘자기중심적’ 이해집단으로 귀결할 가능성을 배태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웠던 과기노조, 대우정밀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선거에서 현 집행부 위원장 또는 현 집행부 간부를 맡았던 후보진영은 대부분 재선출되지 못했던 결과 역시 주목할만하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고용노동조건 의 어려움에 대한 집행부의 '후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다.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가 심각해지는 속에서 조합원들이 확실하지 않지만, '새로운 주자' (새로운 대안)을 선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대안이 조합원들에게 확실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선거결과에서 보여지는 근소한 차이들이 확인시켜준다. 단일 현장조직의 후보로 출마해서 재선된 대우조선노조 나양주 후보, 신병구속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출마한 인천제철노조 문상기 후보, 그리고 한진중공업노조 정상채 후보 정도가 예외라면 예외인 셈이다. 이 역시 올해 상반기 노동자들이 고통전담을 강요당했던 재반 사회적 여건의 책임을 내부에서 찾는 일종의 '희생양 찾기' 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듯, 대기업 노동조합 선거가 현안 중심으로, 심지어 '희생양 찾기방식' 으로 진행되면서 현시기 노동운동이 확보해야 할 노동운동의 전반적 과제(산별조직화, 정치세력화, 사회개혁투쟁)는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결국 이들 과제를 이루어 갈 현장토대는 그만큼 약화되는 셈이며, 노동운동의 중장기 진로를 열 어갈 주체역량의 준비정도는 여전히 담보하고 있다.

노조 선거문화 개선 절실

민주/어용 구도가 약화되면서, 고용보장의 과제가 절실해지면서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 문제가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 현실 역시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전 조합원이 위기상황을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합원들의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투쟁력 집중 방안을 준비하는 진지한 모색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결국 노동조합 집행부는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사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선거과정에

오늘 사회적 위기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은 선거에서 발생하는 동료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해소하며, 견해 차이는 확인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단결'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서 배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 역시 당선된 집행부의 활동 폭을 제한할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한 셈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선진 노동자층의 조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현장조직'의 난립과 이에 따른 선진 노동자층의 '분열'의 문제다. 노동조합 활동 폭을 이들 현장조직 소속 조합원으로 협소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단결의 틀로 기능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한 '선진 노동자층'이 단위노조 선거에 매몰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조직분쟁이 가열되는 한편,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들에 대한 선진 노동자층의 고유한 역할은 찾아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상이 심화될수록 현장 노동조합 조직의 현장권력화 현상만 심화되고, 운동 동력은 약화되는 것이다. 이 점 역시 대기업 노동조합 운동이 전체 노동운동의 현재 과제를 책임있게 풀어갈 주요 자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

선거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공개의 장에서 경쟁하는 절차다. 그런 만큼, 견해의 요점이 명백해지면 질수록 경쟁은 합

리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노동조합의 선거는 정책·방침을 토론하고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힘을 결집해 가는 마당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사소한 인간관계와 정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경쟁에 머물고 있다. 이 점 역시 최근의 선거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오늘 사회적 위기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은 선거에서 발생하는 동료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해소하며, 견해 차이는 확인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단결'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단결이 아닌 '부분의 투쟁'은 패배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합리'를 가장한 무분별한 후퇴는 노동운동 10년 성과들을 자본진영에 헌납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감정의 골은 매우고,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그 실체를 분명히 하면서 함께 투쟁하는 '단결의 모범'이 절박하기만 하다. 단결의 모범을 이루는 것은 선거를 마무리하면서 각 조직들이 이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